

■ 1단계 잔여용지 분양 앞둔 北 개성공단은 지금...

저임금·물류비 절감 큰 매력

개성=이종태기자

5일 오전 서울에서 한 시간이 동 안 버스를 타고 도라산역에 도착했다. 도라산역은 개성으로 향하는 북측 한계선이다. 개성공단을 들어가자면 이 곳에서 '입경(개성을 들어가는 것)'수속을 밟아야 한다.

도라산역에서 개성공단까지는 5km, 10리를 조금 넘는다.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도로 양편은 그야말로 허허벌판이다. 주민들이 빨감용으로 나무를 마구 베가는 바람에 산들은 저마다 허연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도라산역에서 10분여 달린 버스가 (주)삼덕스타필드 마당에 선다. 삼덕

근로자 1인당 임금 月 6만원·노동 생산성 높아

입주 업체들 "통일 디딤돌"...회사 분위기 활기

스타필드는 보성출신으로 부산에서 '삼덕통상'이라는 신발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문창섭(58)사장이 2004년 개발된 개성공단(황해도 개성시 봉동리) 시범단지에서 설립한 업체다.

3천여평의 대지에 3천200평의 건물을 갖춘 삼덕스타필드는 운동화·등산화 등 30여종의 신발을 매달 10만켤레 생산, 개성공단 진출기업 가운데 가장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나염·자수에서부터 재단, 연

구개발(R&D), 제화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시설을 보유한데다 쾌적한 생산환경을 갖춰 1천700여명에 달하는 현지 근로자들의 업무만족도도 최고로 꼽힌다.

문 사장은 "마을이장이 밀지 않으면 취업이 어렵다는 소문이 날 정도"라며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은 70달러(6만원)로, 국내에 비해 20분의 1에 불과한데도 의과대학 졸업자, 영화배우 출신 등이 상당수 있을 만큼 근로자들의 수준이 높다"고 말했다.

이같은 양질의 노동력은 1인당 생산성을 2005년 40%에서 지난해 70%까지 끌어올리는 놀라운 발전 속도를 보여줬다. 품질수준도 같은 기간 80%에서 95%까지 상승, 부산 공장을 앞질렀다.

삼덕스타필드의 성공에는 개성-부산간 직통노선 개방도 한몫 작용했다. 국내 신발제조업체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베트남 등지에서 봉제부품을 국내에 들여와 신발을 완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보통 봉제간의 물류기간이 필요하나, 직통노선이 열리면서 물류기간이 하루로 단축돼 시간은 물론 비용절감에 적지않은 도움이 됐다.

문 사장은 "지난 4월 한미 FTA 협



개성공단내 삼덕스타필드 생산라인에서 북한 여성근로자들이 마스크를 한 채 미싱을 이용해 신발부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조건부 인정하면서 회사 분위기가 더욱 활력을 띄고 있다"면서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개성공단에 서 생산되는 제품을 민족 내부거래로 인정해주는 등 정부가 제도적인 장외 등에 적극 나서야 입주업체들이 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으며, 향후 통

일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덕스타필드 이외에 시범단지 구역에는 광주·전남기업으로 봉제기업인 '신원'(박성철 회장·목포)과 '문창기업'(문인식 사장·영광)과 냉정비에 적극 나서야 입주업체들이 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으며, 향후 통

회 사장·담양) 등이 진출해있다.

한편 6월초 개성공단 1단계 잔여 용지 53만평에 대한 분양신청을 접수한 결과 모두 344개 업체가 신청,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올 말까 면 기존 35개 업체를 합쳐 모두 250여개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jilee@kwangju.co.kr

은행권 중기대출 쏠림현상 여전

지난달에도 5조1천억 늘어

금융감독당국 수장의 경고에도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편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외형 확대를 위한 무한 경쟁에 접어들어 시중은행들이 중기대출 외에 파란만장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은행계에 따르면 국민· 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의 5월말 기준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20조6천억원으로 전월말에 비해

5조1천억원 늘어났다. 이는 4월 증가액인 5조2천억원에 비해 1천억원 가량 둔화된 수준이다.

5개 은행의 중기대출 증가액은 1월 1조8천억원을 시작으로 2월 4조1천억원, 3월 4조9천억원 늘어났다.

이 같은 수치로 볼 때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월중 5개 은행의 원화총대출 잔액 증가액은 6조9천억원으로 중기대출이 총대출 증가액의 74%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제조업체들 "체감경기 괜찮네요"

광주·전남 기업 2분기 이어 3분기도 호전 전망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크게 개선되면서 기업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1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07년 3·4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BSI(기업경기실사지수, 기준치=100)가 '10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4분기(105)에 이어 2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웃도는

수치이며, 향후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 업체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분기에 비해 호전된다고 예상한 업체는 33.0%(전분기 31.3%)인 반면 악화된다고 예상한 업체는 25.2%(전분기 27.3%)로 나타나 호전을 예상한 업체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최근 소비와 생산 등 실물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반도체·

가전 등의 수출증가와 내수회복이 예상되면서 대부분의 업종에서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향목별은 수출(108)과 내수(104)가 전분기에 비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설비가 동원(113), 생산량수준(115) 등의 생산활동이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내수는 지난해 3·4분기(101) 이후 4분기 만에 처음 기준치를 상회하면서 지역 기업들의 실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공정위, 100개 상조업체 조사

불공정 약관 등 위법사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국내 25개 상조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100여개 상조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을 조사하는 등 상조업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상조업체들이 회원의 가입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회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갖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업체의 약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00여개 상조업체로부터 현재 운용중인 약관을 제출받아 각 조항들을 면밀히 심사한 뒤 약관별 위반 등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약금의 적정 여부와 함께 회원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실제 서비스 제공 절차 등에서도 회원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민원이 빈발하는 2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연합뉴스

사이버 쇼핑몰 거래액 1조 2,152억

작년 4월보다 16% 늘어

지난 4월 사이버쇼핑몰 거래가 컴퓨터·전자·통신·의류 제품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사이버쇼핑몰 거래액은 1조2천152억원으로 작년 동월대비 15.9% 증가했다. 그러나 바로 앞달인 3월과 비교해서는 6.3% 줄었다.

품목별로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거래액이 1천274억원으로 작년 4월보

다 29.2% 늘었고 가전·전자·통신기기도 20.5% 증가해 1천889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전자군(群)의 호조는 신학기·봄맞이 신상품과 기획상품 중심의 마케팅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의류·패션 상품 거래액도 2천217억원으로 19.8% 늘었고 재고 여름상품의 정기 세일 등에 힘입어 아동·유아용품 역시 작년동월대비 30.1% 증가한 698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식음료 및 건강식품 거래는 오히려 5.8% 줄었다. /연합뉴스

광주 산업생산을 6개월째 전국 1위

광주지역 산업생산이 자동차·가전제품 등 주력 산업의 수출 증가로 6개월째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4월 중 광주 지역 산업생산지수는 173.3으로 전년 같은 달 보다 19.6% 증가해 16개 시도 가운데 산업생산증가율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경북 (17.2%), 충

남(13.7%), 부산(9.6%)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시의 산업생산증가율은 지난해 11월 22.8%를 기록해 1위를 차지한 이후 12월 21.9%, 1월 32.6%, 2월 11.2%, 3월 20.2% 등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광주지역 산업생산이 호조를 보이

고 있는 것은 자동차(전년 같은 기간 대비 34.4%), 냉장고·에어컨·세탁기·금형 등 기계·장비(17.5%), 고무·플라스틱 제품(29.6%)의 생산액이 크게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은 전년 같은 달 보다 25.0% 증가한 8만4천200만달러, 수입은 29.3% 증가한 4억400만달러로 4억3천8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2003년 4월 이후 4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김주정기자 jjeons@

중소 기술이전 상담회

중기청 8일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기존의 업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중소기업에게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유망기술을 소개하는 '중소기업 기술이전 상담회'를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개최한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테크노파크 등이 업종별 출사한 76건의 우수기술이 소개되며, 기술이전 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을 기술이전기관과 상담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상담회 참가(기술거래 의향)신청서를 작성, 광주·전남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된다. 기술목록 열람, 신청방법 등은 홈페이지(http://gj.smba.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이태리가구 전문점

The 100% Made In Italy

이태리 디바니 DIVANI 소파를 독점수입 판매합니다.

- 등받이 각도 조절, 바닥부분 리모콘으로 침대기능
- 4가지 모델과 이태리만의 칼라 30% 세일 판매
- 홍스페이스는 호남유일의 이태리가구 직수입 전문점입니다.

● 1.2층 : 명품가구 ● 3~5층 : 엔틱가구 ● 지하 : 50% 세일가구

www.hongspace.kr
www.hongspace.kr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구도청옆) 홍스페이스 빌딩 062)226-7567

두메 21세기 식문화를 재창조 하는 젊은 기업

- 외식업계 15년 노하우로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을 드립니다.
이·취임식, 창립기념식, 세미나, 회갑연, 피로연, 출장뷔페, 시세상, 도시락 등 기타음식행사
- 어머니 정성 그대로 담은 100% 순수 국내산 맛깔찬 김치!
30여종의 다양한 김치 생산으로 홍콩, 대만, 일본 등 수출 2003, 2004 광주김치대축제 최우수상 수상
- 학교, 병원, 기업체, 관공서 등 위탁급식운영 및 식자재 납품

두메외식산업(주) www.dumept.co.kr
두메김치(주) www.dumekimchi.co.kr
두메푸드시스템(주) www.dume1992.co.kr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401-2 TEL.(062)571-6000 FAX(062)571-6030